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5호 [주제 제25288호] 주제 105 (2016)년 5월 24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귀성제염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귀성제염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실태  
를 료해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오수용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연구사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 한 몫을 차지하는 소금공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경제적 가치가 큰  
지하초염수자원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을 현실에  
도입할 때 대 한 전투적  
파업을 인민군대에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령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 안은 인민군대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지난  
해 당국에 제염소에 대한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을 꾸려놓고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올해 3월초부터 현재까지

150여정보의 소금밭에서 7,000여t의  
소금을 생산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적은 면적의 소금밭에서 많은  
량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잡이 오지 않았다고, 밤새  
해당한 보고자료들을 보고 또 보다가 이  
렇게 한말음에 달려왔다고 하시면서 소금  
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하초염  
수로 소금을 생산하는 방법을 널리 받아들일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사업에서도 인민군대가 앞장에  
섰다고 하시면서 사회에서는 몇년전부터  
시작하였지만 아직 똑똑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있는데 인민군대에서 짧은 기간에

소문없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고, 당시  
명령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것을 제칠화하고 있는 인민군대가 역시  
다르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하초염  
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과 바다물에  
의한 종전의 소금생산방법을 대비해보시  
면서 새로운 소금생산방법의 경제적효과  
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바다물에  
서 소금을 얻어내자면 저류지, 예비증발  
지, 증발지, 결정지를 거쳐야 하지만 지  
하초염수는 바다물보다 농도가 몇배나

높은것으로 하여 증발지와 결정지만 거쳐  
도 소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지금 허용  
하고 있는 소금발면적의 절반정도만 소금  
생산에 허용하고 나머지면적에서는 바다  
가양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지하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하면 종전

에 비해 소금발면적은 물론 생산주기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정보당 생산량을 몇 배로  
증성시킬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귀  
중한 자원에 의거하여 큰 실력을 얻는

새로운 소금생산방법이야말로 소금생산  
의 집약화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하초염수로 생산한 소  
금은 바다물로 생산한  
소금에 비하여 서술이  
적으므로 쓴맛이 거의  
없고 맛이 좋으며 칼리  
움과 요드함유량이 많고  
증글속 함유량이 적으므  
로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식료품 생산, 화장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생산  
에서 허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서해안일대에  
는 경제적 가치가 큰 지  
하초염수자원이 풍부하  
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  
과 경제발전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금생산을 획  
기적으로 늘이자면 해당  
부문에서 람사를 힘있게  
벌려 유망한 지하초염수  
매장지들을 찾아내며 각  
지 제염소에서는 지하  
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소금대미  
에 다가가서 몸소 소금맛을 보아주시  
며 맛이 참 좋다고, 부드럽고 쓴맛이 전  
혀 없다고 하시면서 이곳은 보물을 생산  
하는 곳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규모있게  
쌓여있는 소금더미들을 훑한 미소속에  
보고 또 보시며 정말 흐뭇하다고,  
자신에게는 소금더미들이 백금산으로  
보인다고 뜻내 기뻐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귀성제염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 1면에서 계속

다시금 힘 있게 과시하였다고 높이 평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하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하는 방법을 받아들이는 관철은 인민군대처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누가 보건 말건 스스로 일감을 맡아 안고 뛸쳐나서 끝까지 과세 찬 나라의 소금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들판구를 열어놓았으며 당군의 본때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감으로써 우리

나라 소금공업력사에 하나의 분수령을 마련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군인들에게 대단히 수고를 더 많았으며 높이 평가했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정말 대만족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은 시작에 불과하지

만 전망이 확고하며 소금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계속 앞장에서 소금산, 백금산을 높이 쌓아가는 것과 함께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네리 일반화해야 한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소금 생산은 식량생산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마음먹고 달라붙어 투쟁한다면 능히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소금생산부문에서는 소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 릴 것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소금을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경기장개건보수공사를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경기장개건보수공사를 성실히 외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원 간호원 김영순은 당시 뜻을 받들고 공사장에 달려나온 첫날부터 건설자들을 대 한 현장치료전투를 힘 있게 벌리면서 노력적, 품질적 지원에 앞장섰으며 윤정운행 무원 박철준, 대성운행 무원 박주혁은 많은 공구와 차례, 후방물자를 마련해 가지고 공사장을 찾아가 철야현장을 다그치는 건설자들의 일의를 복돋아주었다.

우리 인민이 최상의 품질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시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겨 안은 채

위공업성 산하단위 부원 김주향의 성의 있는 지원으로 충청의 구슬땀을 푸치면서 어려워 힘 있는 지원사원을 베풀며 진실한 사랑을 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는 영광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당파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했음을 간직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업을 결사貫彻하기 위한 투쟁에 한들 다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속도전청년돌격대 참모 김진주는 백두의 혁명정신, 청년전위돌격대 참모 김진주는 백두의 혁명정신,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는 행사

## 여러나라에서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상영되었다.

행사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석하였다.

스웨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

업총보고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

하고 당대회는 김정은각하를 조선

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었

다. 김정은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

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은 역사적사변

이다. 이것은 그이에 대한 조선의 전

체 당원들과 군인들, 인민들의 무한

신뢰와 다행없는 흠토의 표시이

다고 격찬하였다.

나이제 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조선

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에 열렬한 축하

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식회사와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근로대중을 위해 북부하는 혁명적당으로,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전진하시였으며 온 사회를 하나의 확

무한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당대회 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위업완성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두

정파파들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조선에서의 자주, 선군, 사회주의위업을 이루려는 조선인민의 의지를 드림없이 계승되고 있다.

제 인민파의 친선 및 대내성 양팔

【조선중앙통신】

##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평양 5월 23일말 조선중앙통신】

각자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세시된 강령적사업을 펴풀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운

나라 인민경쟁률과 청년들, 인민들이

백두의 뿐은 혁명정신과 자강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대비약,

대혁신의 말리마속도창조운동에 산악같이

펼쳐나섰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방향으로 억세게 자리난 수력안 청년천위

들은 당중앙이 정한 품질집회로써 백두의

갈바란정신으로 품질체 내달려 사회주의강

국건설의 운데 한 목표를 절영하기 위한 투

쟁에서 조선청년의 영웅적기상과 분별을 남

김없이 펼쳐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로 총

돌파, 총발동시키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힘

기묘임이 23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그들은 당 제7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同志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것은 회색의 천재위인에 대한 천만

군민의 고결한 충성과 절대적인 신뢰의

발현이며 당파 혁명, 조국과 민족의 만년대

개를 담보하는 혁명적대경시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꽂힌 청

년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한

## 청년전위들의 결기 모임

을 표시하였다.

모임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에게 보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호소문《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사

회주의 천진승리를 향하여 흥공적 앞으로!》를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맹

독을 하였다.

이어 청년시청년 동맹위원회 위원장 문

철, 김종태전기기원자연합기업소 조동사 최

경우,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퍼지향이 결의

로 토론을 하였다.

또본인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

을 높뛰는 가슴마다에 빛아안은 운 나라 청

년전위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

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걸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걸사보위하며 수령님들

의 유훈을 청서히 관찰해나가는 산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뿐만히 준비하여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 제7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同志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것은 회색의 천재위인에 대한 천만

군민의 고결한 충성과 절대적인 신뢰의

발현이며 당파 혁명, 조국과 민족의 만년대

개를 담보하는 혁명적대경시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꽂힌 청

년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한

## 진행

들이 그대로 유파되어 되고 성새, 방폐가 되

여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절사옹위하여는 김정은제일결사대, 즉어도 혁명신념 뼈

지지 않는 사상파 신념의 강자가 빛에 대하

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년대오안에 당의 유파적평도체

계를 더욱 짜증히 세우고 청년들속에 당대

회장과 사장을 깊이 싣어주어 모든 청년

들이 당 제7차대회 결정관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청년시절을 혁명적수령관파

열렬한 조국애, 불굴의 신념파 투철한 계급

의식, 고장한 도덕판을 기워나가는 청년혁

명학교파정으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대회결정을 무조건 판결하여야 할 지

상의 혁명파업으로 간주하고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세인을 경탄시키는 새로운 영웅

청년신화를 편이어 창조해나가며 만리마시

대를 청년관으로 만들어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년작업방, 청년분조운동을 힘있

게 벌리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

일음을 일으켜 우리 나라의 지대적특성과

자연기후조건에 맞는 우량품종들을 더 많

이 유풍하고 고장한 도덕판을 기워나가는 청년혁명

명학교파정으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에서 지지점만 대주면 파악기술의 지

혜대로 지구도 들고 우주도 끌어당길수 있

다는 배짱을 가지고 최첨단돌파의 높은 봉

우리를 절영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숨고한 청년과 풍부한 지식을 경비함

으로써 주체의 청년과 조국을 파악기술강국,

천화제일강국으로 온 세상에 빛내일에 대

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두뇌전, 실력전을 힘 있게 벌여

## 정론

## 5월의 0 기세로 총공격 앞으로!

5월의 조국강산이 불덩이같이 달았다. 위대한 승리자들의 기세는 이 땅에 또다시 새로운 흥공격전의 기상을 낳았다.

『경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7차 대회 파업 판결에 총배전하여 최후승리를 앞당기자!』, 이 구호 새겨져온은 나라의 초소와 일터들은 그대로 새로운 흥공격전의 포성없는 전구이다.

인민의 기세가 금지처럼 양양되어 본적은 없었다. 출발선에서부터 마음은 벌써 승리의 대안에 달아있고 안아를 눈부신 미래에 대한 환희로 천민의 심장이 뛰어는 바다처럼 설레인다.

승리의 5월, 영광의 5월과 더불어 인민의 힘과 포부가 더욱 원대해지고 내질는 진군의 보복과 승절도 드높아진 이 땅,

당 제 7차대회 보고를 세로운 흥진군의 강령으로 피는 심장에 밟아온 천만군민이 떠쳐나온 우렁찬 드력의 합성이 시대의 진군과 함께 마아리치고 수도의 펴여는 려전장을으로부터 대야금기자와 구내길과 수천길의 지하작장, 깊은 산불의 분조로전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양양과 직동의 유풍으로 세차게 5월의 정찰한 이 화폭,

얼마나 가슴벅찬 광경인가.

달려온 진군길우에 안아온 흥승리의 영봉으로 피는 새로운 흥공격전의 주제군민이 또다시 억세제 이어놓는 새로운 흥공격전의 주제군으로, 이것이야말로 승리에서 승리에 나가는 조선의 보복과 숨길이다. 바로 이것이 물이 떠나가며 절지연정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순간도 두번을 멈추지 않는 청정풀과의 공격투사들의 신념이고 의지이며 불후의 명령『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혁명정신에 고동치는 계속혁명, 계속진군의 활활없는 냄새이고 기개인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는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우리 당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역사의 분수령으로 봄 것입니다.』

승리에서 승리에로!

승격 또 공격!

역사의 준행을 넘어 오늘에로 이어져온 혁명의 벼슬의 주로와도 같은 이 부름이다.

혁명은 시련과 난관을 둥반한다. 보전 역할을 해고해야하고 때로는 영한 할수 없는 고통과 희생도 이겨내야 하는 간고한 혁명의 길을 끌까지 이어가는는데서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꿈틀없는 광적정신이다.

공격, 이는 물이 끓는 폭풍속에서 동오나 후퇴가 아니라 역용을 향해 기발을 더 높이 추구하는 듯발이의 정신이고, 설사 앞에 절벽이 있고 지뢰밭이 있다 해도 이를거나 끌려설사를 모르고 알으면 나아가는 꾸비로의 정신이며 한민족 한 혁명의 길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최후승리의 그늘까지 대로 이어서라도 가고가는 껌까지의 정신이다.

유례없이 강하고 사전에 차 우려 혁명이 오늘과 같이 눈부신 명봉에 높이 오를 수 있는 것은 굽함없는 광적정신이 넓으로, 꾀풀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 시원의 천만비길을 향한 불굴의 광적정신으로 휴고 청우리 혁명의 모든 세대가 새겨온 피와 땀의

주로우에 솟아오른 역사의 분수령이었다.

조선의 5월, 진정 얼마나 가슴벅찬 환희와 직동의 계절인가.

세상에 당은 많고 많마다 자기의 대회가 있다. 하지만 역사의 어느 깥에도 우리 당 제 7차대회와 같은 위대한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는 없었다. 지금 세계의 수많은 통신, 방송들은 당 제 7차대회 소식을 앞을 다루어 전하고 있다. 그것은 그대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에 대한 감叹이고 격찬이다.

우리의 힘과 굳력을 지닌 자주의 행강국, 일심단결의 강철의 힘을 글전히 다진 불파의 힘, 자주성의 정신을 실질화한 창조 대군이 술을 이룬 나라, 수백만의 청년들이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을 믿음직하게 준비된 세상에 하나님에 있는 청년 장군...

남들 같으면 100년, 수백년을 두고도 이를수 없는 거창한 새기적사연을 험난한 시련의 폭풍우속에서 그처럼 원버려게 이루면 위대한 우리 힘, 영웅적 우리 인민, 하나나 땅의 5월의 의미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모두다 당 제 7차대회 결정판결에로!

모든 힘을 당 제 7차대회 결정판결을 위하여!

승리의 촉포 장폐하게 머여오른 내 조국의 5월의 하늘과 우리 군대와 인민이 떠쳐나온 새로운 흥공격전의 합성이 또다시 세기를 전하고자하고 있다.

갈팡질是最好的 광적정신에서 해온 『문까지』!

이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흥공격 앞으로! 바로 이것이 이 땅의 5월을 짚갈하는 억센 숨결이며 땅이며 우리가 올라선 승리의 영봉이 어떤 고귀한 의미인 것이다.

물이여보면 성스러운 우리 혁명의 터장에는 주억 깊은 승리의 광장들이 많았다. 해방후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인민들과 깨끗한 첫 상봉을 험난한 개선광장으로부터 장대성의 『신화』를 자랑하며 침략의 피수를 발 닦에 끌어안은 무적의 열병대오가 도도히 굽이쳐온 천승봉, 세상에 하나님인 사회주의붉은 힘을 절집 날리며 궁지牢에 수놓아온 의 깊은 경축의 광장들...

그 승리의 광장들은 무엇으로 하여 그처럼 귀중하였던가.

해방후 개선광장에 메아리친 만세의 합성은 새 조국건설의 미처소리로 힘차게 이어졌고 전승의 광장을 제갈한 열병대오의 날구봉에서 조국인민들과 깨끗한 첫 상봉을 험난한 개선광장으로부터 조선사람의 본래를 보여주며 천리마의 호옹소리로 세계를 위로하지 않았던 우리 혁명에 있어서 올바른 승리의 풍우리는 언제나 더 높은 형마루에로의 출발진지였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 이룩한 승리도 벅차지만 안아올 승리 또한 눈부신 역사의 문수령이다.

우리 조국땅우에 펼쳐질 평일은 생각만 해보아도 기습부준다.

파기술과 강국건설, 경제강국건설의 봄은 한 민족이 지닐수 있는 힘과는

제 7차대회에서 전개되는 청기와 청기의 힘과





# 위대한 승리의 화불이 앞길 밝히는 총련의 미래는 창창하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외교를 수령님께서 품소 무어주시고 그들이 풍민단체, 사회주의 조국의 한 부분이며 총련군들과 제일동포들은 어머니 조국과 함께를 잊고 살고 천명제, 한집안식습이다. 총련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힘에 총련을 전제로 제일동포들의 권리와 책임을 대표하고 각지를 있다. 그 위대한 손길이 있어 제일조선인운동은 자본주의 일본에 힘을 끌어내는 데 기여한 제일조선인운동으로 강화발전시켜 주민과 백수단체인들의 협력한 행동과 그나마 실질과 함께 향으로 제시하였다. 총련을 전제하고 민족이고 민족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장군님의 강령적사람의 근본복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역사적인 서한은 총련의 궁지에는 이제와 오늘 그리고 천한 제일동포들의 힘에 대한 힘에 대한 행동과 그나마 실질과 함께 향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은 자본주의 일본에 힘을 끌어내는 데 기여한 제일조선인운동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장군님의 강령적사람의 근본복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84(9·9·95)년 5월 24일 총련결성 40돐에 즈음하여 보내 주신 서한은 제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밝힌다. 제일조선인운동의 대회에 대한 김정은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서 주제 104(2015)년 5월 25일 총련 결성 60돐에 즈음하여 보내 주신 서한은 제일조선인운동의 대회에 대한 김정은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서 제일조선인운동은 자본주의 일본에 힘을 끌어내는 데 기여한 제일조선인운동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장군님의 강령적사람의 근본복이다.

직으로 진대성하시고 총련의 모든 사업을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던데 해나가며 주체사상을 지도 사상, 학도적기지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는 것을 총련의 기본사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총련을 전제하고 민족이고 민족으로 강화발전 속에서도 풍만한 운동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을 확장시키면서 차지하는 것은 장군님의 강령적사람의 근본복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역사적인 서한은 총련의 궁지에는 이제와 오늘 그리고 천한 제일동포들의 힘에 대한 힘에 대한 행동과 그나마 실질과 함께 향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은 자본주의 일본에 힘을 끌어내는 데 기여한 제일조선인운동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장군님의 강령적사람의 근본복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풋을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총련이 걸어온 로정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제의고로 되며 수령님들의 뜻과 원원을 실현 운동사상과 협력한 행동의 및 나는 력사, 송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전설로 주체의 애국적으로 차자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조직사상으로 군대 단계로 광범위한 동포대 중속에 깊이 뿌리박았으며 예국 충정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있는 것 이아름다. 총련의 자랑스러운 참모습이며 총련의 경지이고 힘의 원동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에서는 모든 사업을 철통 철통!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제일조선인운동을 위한 힘을 끌어내고 있다.』『총련에서는 제일조선인운동의 대회에 대한 김정은의 경지이고 힘의 원동력이다.』『총련은 자기 수령, 자기 조국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면서 일심단결의 위력을 끌어 끌어는 불멸의 대로로, 오직 위대한 수령님들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들의 뜻과 원원을 실현해나가는 것을 본분으로 하는 창다운 주체의 애국적으로 차자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조직사상으로 군대 단계로 광범위한 동포대 중속에 깊이 뿌리박았으며 예국 충정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있는 것 이아름다. 총련의 자랑스러운 참모습이며 총련의 경지이고 힘의 원동력이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이 전면적으론 밝혀져 있는 체제위인들의 역사적 행적을 제일조선인운동의 불멸의 대로로 존존하는 체제로써 제일조선인운동에서 풍만한 운동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의 불변의 지침이며 만민조선이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제의고로 운동사상과 업적은 제일조선인운동의 불변의 지침이며 만민조선이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제의고로 운동사상과 업적은 제일조선인운동의 불변의 지침이며 만민조선이다.

그러자면 사용도 명도도 품모도

체제위인들의 역사적서한을 애국 위업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려는 총련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제의고로 운동사상과 업적은 제일조선인운동의 불변의 지침이며 만민조선이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제의고로 운동사상과 업적은 제일조선인운동의 불변의 지침이며 만민조선이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제의고로 운동사상과 업적은 제일조선인운동의 불변의 지침이며 만민조선이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제의고로 운동사상과 업적은 제일조선인운동의 불변의 지침이며 만민조선이다.

그러자면 사용도 명도도 품모도

총련의 힘이 있고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 그들이 애국의 드높지 않는 기둥이 되고 주주들이 되며 제일조선인운동을 앞장에서 이끌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새 세대 동포들의 사업에 힘을 넣고 그들을 애국활동의 주역으로 적극 내세워 주어 자기 수령파 어머니 조국에 무한히 충실히 해온 총련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

야 한다.

총련은 인족문화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동포사회에 민족성이 차넘치게 하여 모든 동포들이 이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조선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자부심을 가지고 험하게 살아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정신을 고취하여 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며 의탁하게 하여야 한다.